

[시작페이지로](#) [메트로소개](#) [독자센터](#) [보도자료](#) [지면PDF](#) [RSS](#)



2014.01.03 16:14:32

 글로벌메트로 | 겨울축제속으로 | 2014년 재계신년사


[뉴스](#) [경제](#) [국제](#) [라이프](#)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포토뉴스](#) [지면 PDF](#) [이벤트](#)

뉴스 > IT/과학 > 과학

포스텍, 빛을 이용한 암 치료 기술 개발

◎ 최종수정 : 2014-01-03 15:01:35

[+/-](#) [e](#) [t](#) [f](#) [g+](#)

검색은 KISS!
제작은 북토리
아직도 논문제작 고민하고 계세요?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논문제작도 북토리가 하면 명지가 됩니다!

• 흥보물
• 학원교재
• 시/소설/수필
• 보고서/제안서

BOOKTOORY 디지털인쇄



▲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포스텍(포항공대)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나노그래핀-히알루론산 접합체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암 조직 광열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한세광(45)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정호상(박사과정)씨는 하버드 의과대학 웰만왕의약센터와 공동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그래핀을 히알루론산과 접합, 암이 유발된 동물모델의 피부를 통해 투입한 다음 극적외선을 쪼이는 광열효과를 통해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약물투여 등으로 인한 항암치료 과정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 'ACS Nano' 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최근 3년간 나노의약(nanomedicine)용 생체재료 개발과 관련, 총 30여편의 논문을 '네이처 포토닉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저널에 게재했다. 또한 국내외 30여 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도 완료했다.

한 교수는 "하버드 의대와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빛을 이용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jy0403@)

세계 최대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http://www.emetr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능 영어
1등급을 원한다면
타.협.은
없.다!

제우스 | 영어 이충권

[속보](#) 현오석 "원·엔 환율 예의주시...일단 2

포토뉴스



스타인터뷰



크레용팝 "올해는 발라드·드라마·예능도...

클릭 MLB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

추신수 성공비결 "돈으로 할 수 없..."

메이저리그 입성 9년만에 :

실시간SNS



1호선 종로3가역 지하철 1

정...인천방...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

구로디지털단지내 호텔 공

서 화...

26일 오후 1시30분경 서울



Your happiness.. Our future..

In service is the power of people. People are the source of innovation and growth.
People are the core of our management system. All employees are encouraged to serve their own
The pursuit of the welfare of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s the ultimate goal of our company.
The pursuit of the welfare of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s the ultimate goal of our company.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 대표 카드 혜택 모두 담았다!

신용카드 최고의 혜택

걸스데이 소진 전신 시스루 패션

Tweets

Follow

 메트로신문
@metroseoulnews

1h

<삼성전자, 이틀 만에 시총 12조원 사라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분기 실적 우려에 이틀 만에 12조원 줄어들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전 11시 23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fb.me/2N0LLc8Dd
 메트로신문
@metroseoulnews

1h

<코리안 리, 해외매출 비중 확 늘린다>

코리안 리가 오는 205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풀어 올리고 해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배포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채용문의 | 불편사항
고충처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독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번지 (주)메트로신문사
[서울]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1870 [부산] Tel : 051. 959. 2100 / Fax : 051-959-2101
(주)메트로신문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문의메일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